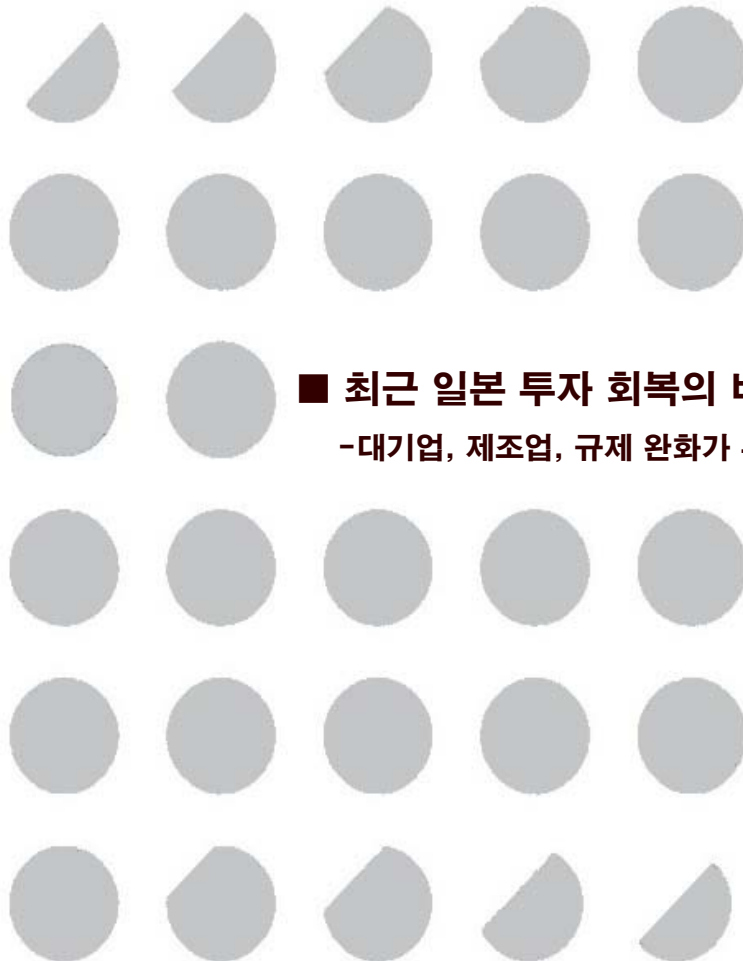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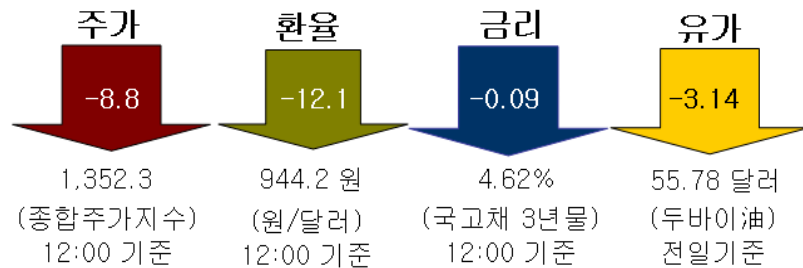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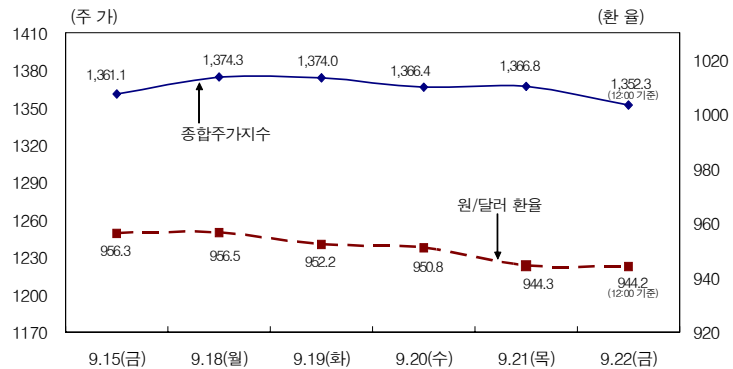


■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대기업, 제조업, 규제 완화가 투자 증가 견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5~9.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대기업, 제조업, 규제 완화가 투자 증가 견인 ..... 1

주간 경제 동향 ..... 11

- 실물 부문 : 하반기 이후 고용시장 악화 예상 ..... 11
- 금융 부문 :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 대폭 하락 ..... 12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실물 분석팀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대기업, 제조업, 규제 완화가 투자 증가 견인-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12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3.1%로 저조했던 일본의 설비투자는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최근에는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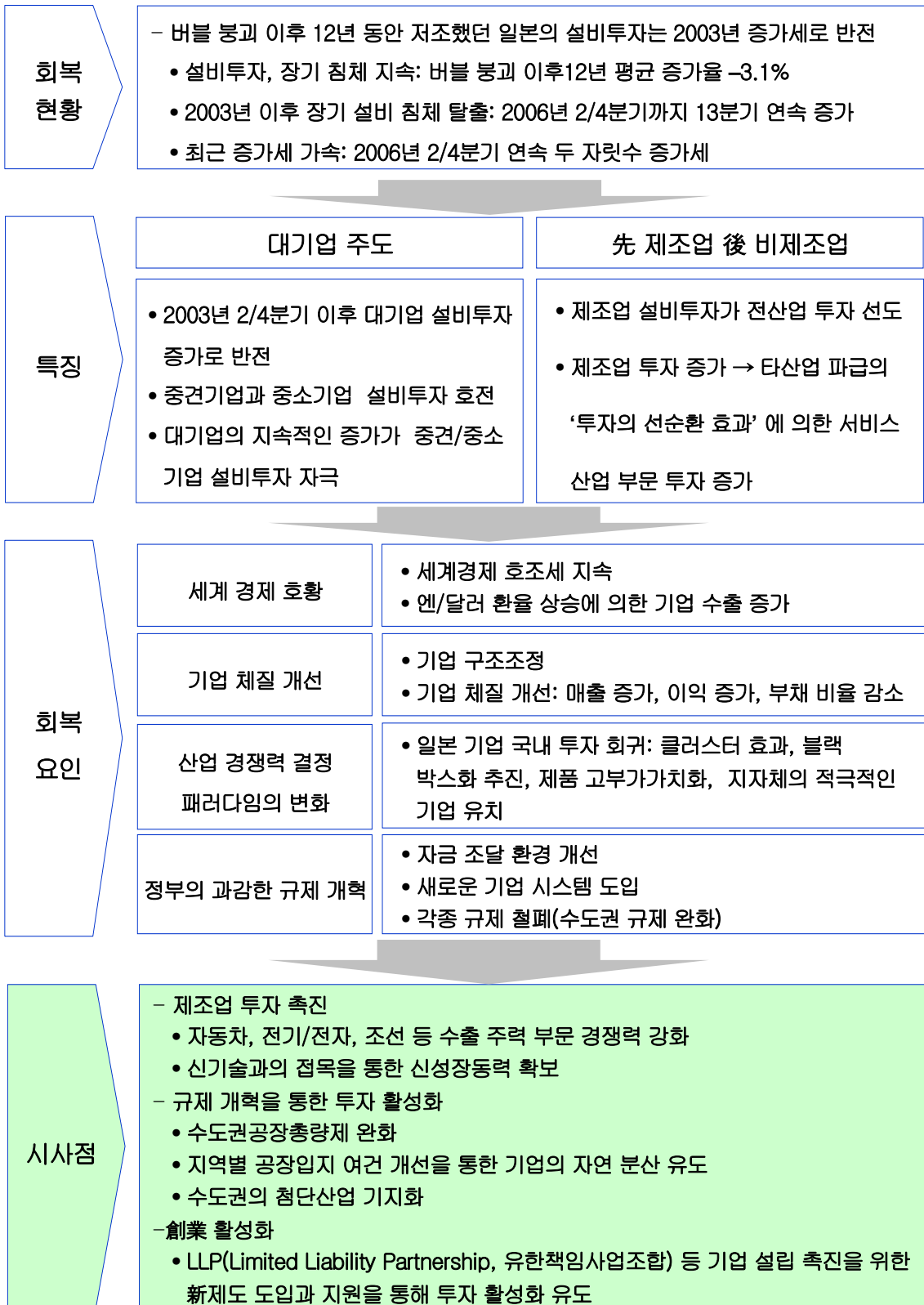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은 대기업과 제조업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비제조업 순으로 투자가 순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 연계 효과'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설비가 비제조업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기업 고용 증대, 민간 소비 확대, 서비스업 수요 증대로 이어져 비제조업의 설비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의 선순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원인은 세계 경제 호황, 기업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설비투자의 국내 회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의 네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2004년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과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본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기업의 실적 개선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매출 및 기업 이익 증대, 부채 비율 감소 등 기업 체질 개선으로 투자 여력이 늘어났다. 셋째, 과거 비용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코스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갔던 투자가 지식경쟁력 회복을 위해 일본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조건보다는 일본 내 우월한 지식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장기 투자 침체로 인해 성장 둔화, 고용 부진 등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자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설비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노력을 보였다. 우선, 일본 정부는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건전성을 회복하여 은행 대출 여력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로 금리정책을 1999년 2월부터 실시하여 최근까지 유지해 왔다. 둘째, 새로운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2003년 2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를 실시하여 기업 설립이 자유화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수 일 내로 용자가 가능한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에는 신규 회사 설립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자자가 출자액만 책임을 지고 출자자의 이익 배분에 과세가 되지 않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기업 구조 조정 가속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도권 집중 규제 제도인 工業等制限法과 工場再配置促進法을 각각 2002년, 2006년에 폐지함으로써 기업 투자 관련 규제를 철폐하였다. 즉, 일본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투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 투자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의 요인을 통해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의 제조업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서비스업 수요 창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제조업 투자 여력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LLP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기업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대기업, 제조업, 규제 완화가 투자 증가 견인- >



□ 최근 일본투자 회복의 비밀 -대기업, 제조업, 규제완화가 투자 증가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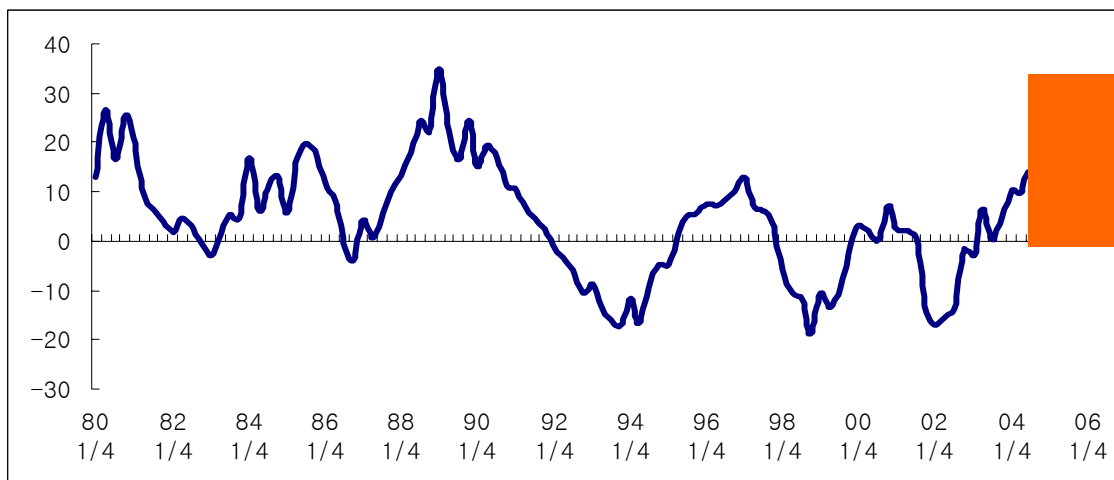
1.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본 설비투자

○ (설비투자 회복 추세의 가속화)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12년 간 평균 증가율이 -3.1%로 저조했던 일본의 설비투자는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최근에는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 장기 침체 지속: 버블 붕괴 이전(1981년~1990년) 평균 11.0%에 달 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버블 붕괴 이후(1991년~2002년) 평균 -3.1%로 급락, 설비투자의 '잃어버린 12년'을 경험함
- 저투자의 늪에서 탈출: 지난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로 반전되면서 12년간의 장기 투자 부진에서 탈출, 설비투자가 최근 2006년 2/4 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
  - 최근의 증가는 버블기의 20분기 연속 증가 이래 최장 기간임
- 최근 증가세 가속: 특히, 2005년 1/4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가속, 2006 년에 들어 1/4분기 13.5%, 2/4분기 18.4% 등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냄

< 일본의 설비투자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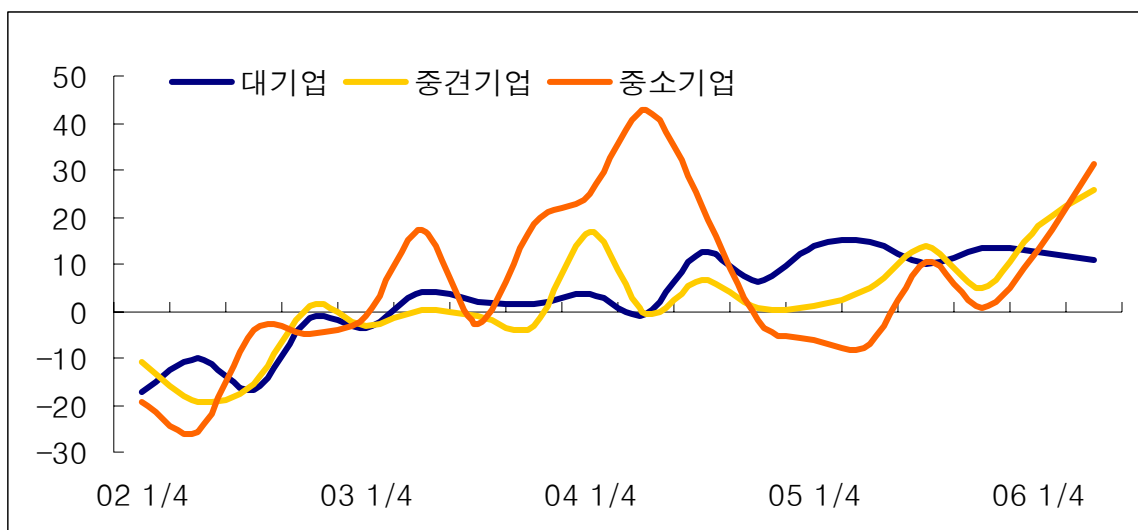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2. 대기업과 제조업이 설비투자 회복 견인

- (대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세 선도) 2003년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꾸준히 설비투자가 증가되어 왔고, 2006년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증대함
-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로 반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2003년 3/4분기 이후 지속 증가 (2004년 2/4분기 제외)
- 뒤이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호전: 대기업에 이어 2006년 2/4분기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설비투자의 두 자릿수 증가에 크게 기여
- 대기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자극: 대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증가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큼

< 규모별 설비투자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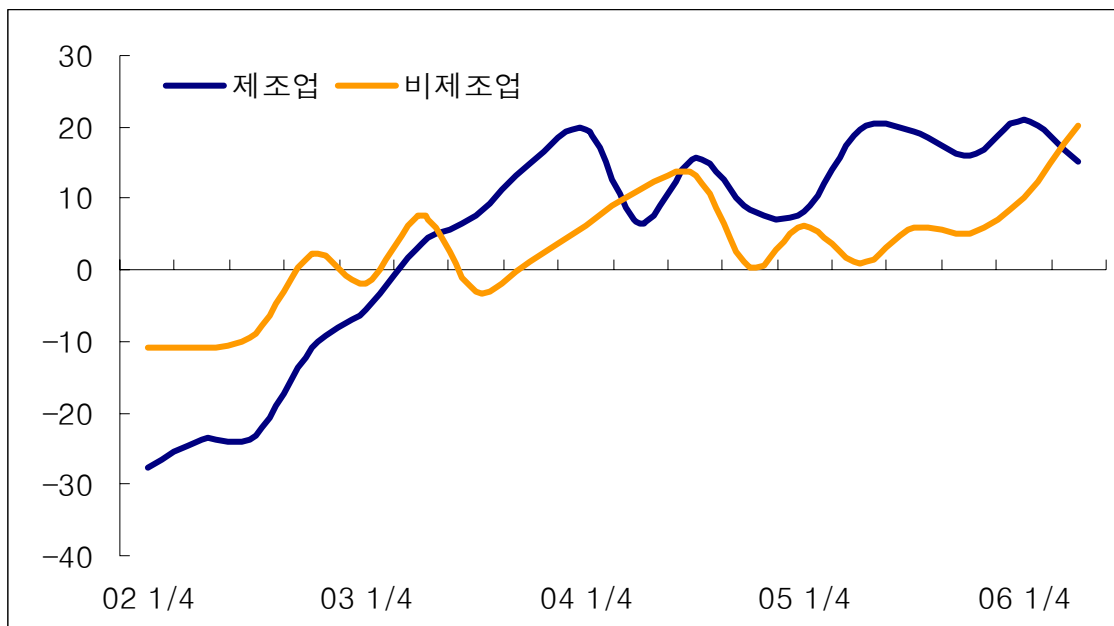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 (先 제조업과 後 비제조업 동반 증가) 제조업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인 후, 비제조업의 투자가 2006년 들어 급증하고 있음
- 제조업 설비투자가 투자를 선도: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제조업 설비투자가 2005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
- 비제조업 증가: 제조업의 꾸준한 설비투자 증가에 이어 2004년 4/4분기부터 비제조업 또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들어서 증가율이 급상승
  - 2006년 비제조업 대폭 확대: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견인하고 있는 비제조업 설비투자가 2006년에 들어 대폭 확대
  - 비제조업 설비투자 급증 원인: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기업 고용 증대,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의 수요를 증대시켜 비제조업의 설비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의 선순환 효과' 때문임

< 업종별 설비투자 추이 >

(단위: %)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3. 설비투자 회복 요인: 기업체질 개선 노력과 정부 정책 노력의 조화

- (설비투자 회복 원인)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에는 세계 경제 호황, 기업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설비투자의 국내 회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상호 작용하여 상승 효과를 창출함에 있음
- (세계 경제 호황) 2004년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과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본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기업의 실적이 개선됨
  - 세계경제 호조세 지속: 미국은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3%대, 중국은 2003년 이후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EU 또한 2004년에 성장률 1%대를 회복하는 등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엔/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기업 수출 증가: 1999년 말 102엔/1달러였던 엔/달러 환율이 110엔 대 전후에서 유지(2004년 제외)되어 엔/달러 상승 기조 지속
    - 엔화 가치의 절하로 2002년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수출 증가율이 2003년 이후 플러스로 반전, 2006년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기업 이익 증대에 기여

< 엔/달러 환율 변동추이 >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9.20.
엔/달러	114.36	131.38	118.52	106.97	103.13	115.80	117.58

자료: 한국은행.  
주: 기말 기준.

< 일본의 수출 증가율 추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4	2006 2/4
수 출(%)	12.2	-6.7	7.6	9	13.9	7	13.4	10.3

자료: 內閣府.



- (기업 체질 개선)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매출 및 기업 이익 증대, 부채 비율 감소 등 기업 체질 개선으로 투자 여력이 늘어남
  - 구조조정: 버블 붕괴 후, 일본 기업은 M&A 및 인원 삭감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 닛산의 구조조정 노력: 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만성적인 적자 탈출을 위해 인원 삭감, 공장 폐쇄, 계열 해체 등 NRP(Nissan Revival Plan)라는 기업 구조 조정을 실시, 개혁에 성공
  - 기업 체질 개선: 매출 및 기업 이익 증대, 부채 비율 감소 등으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됨
    - 매출 증가: 2006년 2/4분기 소산업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13분기 연속 증가
    - 이익 증가: 경상이익률 또한 2004년 2/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 부채 비율 감소: 버블 붕괴 이후 최고 402%에 달하던 일본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6년 1/4분기에 202%까지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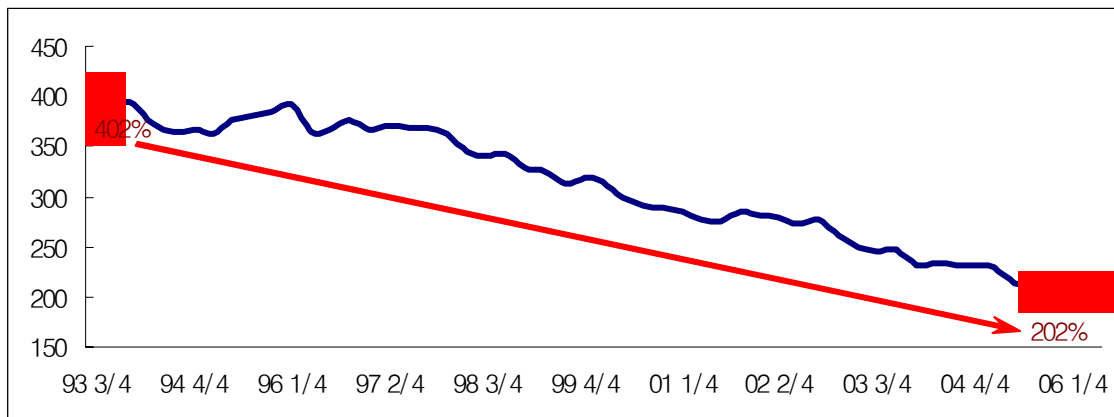
< 소산업 매출 증가율 및 경상이익률 추이 >

구 분	2004/2	2004/3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2006/1	2006/2
매출증가율(%)	5.4	5.7	5.1	6.0	3.0	4.6	5.5	5.0	8.6
경상이익률(%)	34.3	37.8	17.6	15.8	12.9	6.6	11.1	4.1	10.1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季報.

< 일본 기업의 부채 비율 추이 >

(단위: %)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 변화) 과거 비용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구조로 전환되어, 저비용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간 기업 투자가 고지식 국가인 일본으로 복귀함
  - 일본 기업, 국내 투자 회귀: 1990년대 이후 비용 절감 및 생산거점 확충을 위한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했으나, 최근에는 클러스터 효과, 블랙박스화 추진 등 고부가가치 투자로 투자 패턴을 전환하면서 국내 회귀 증가
  - 클러스터 효과: 재료, 부품, 제조장치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 국내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등 이른바 클러스터 효과가 존재함
  - 블랙박스화 추진: 일본 기업의 강점인 제조 기술의 노하우 등 지적재산보호를 통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블랙박스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일본 기업들은 일본 내 생산 (Made in Japan)에 의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수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미에현, 오이타현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 또한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외 진출 기업 감소: 결국 1998년부터 증가세에 있던 일본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및 자본 참가 법인수가 2002년의 787개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2004년에는 466개사로 급감하는 등 해외 신규 진출 기업수가 해외로부터 철수한 기업수를 하회

< 일본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및 자본 참가 법인수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 조 업	248사	340사	378사	398사	312사	201사(215사)
비제조업	266사	323사	309사	389사	321사	265사(323사)
합 계	514사	663사	687사	787사	633사	466사(538사)

자료: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6년 3월 속보.

주: 괄호 안은 2004년 철수 기업 법인수.

○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 정부의 정책 노력 또한 설비투자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의 배경: 장기 투자 침체로 인해 성장 둔화, 고용 부진,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투자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 투자 증가율, 성장률 침체, 실업률 증가: 버블 붕괴 이후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3.1%를 기록, 붕괴 이후 경제성장률은 붕괴 이전에 비해서 약 3%p 낮아진 1.2%를 기록, 붕괴 이후 평균 실업률은 붕괴 이전의 2.5%보다 높아진 3.6%를 기록하는 등 장기 경기 침체가 지속됨

< 버블 붕괴 이전과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 비교 >

(단위: %)

구 분	버블 붕괴 이전(1981-1990)	버블 붕괴 이후(1991-2002)
설비투자 증가율	11.0	-3.1
GDP 증가율	3.96	1.2
실업률	2.5	3.6

자료: 內閣府, 總務省 統計局.

주: GDP는 1995년 기준년도 수치임.

-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부실채권 급감에 의한 기업 대출 환경 개선, 제로금리 정책 실시 등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함
  -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건전성 회복: 금융재생법(1998년 10월, 2002년 1월 개정법 시행), 산업재생기구 설립(2003년 4월),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금융건전성을 회복함

- 은행 대출 여력 증대: 2002년 3월 52.4조 엔에 달하던 전국은행의 부실채권이 2006년 3월 13.3조 엔으로 급감하여 은행 대출 능력 증대함
- 제로금리정책 실시: 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1999년 2월 무담보 콜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는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여 최근까지 유지(일본은행은 2006년 8월 제로 금리를 해제)

< 일본 금융재생법에 의한 전국은행 부실채권 추이 >

(단위: 억 엔)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파산갱생채권	77,860	76,610	74,040	57,470	43,520	32,310	23,580
위험채권	162,480	150,340	193,150	130,130	111,880	88,360	63,240
관리채권	77,710	109,350	164,880	165,790	110,550	58,600	46,900
계	318,050	336,300	432,070	353,390	265,940	179,270	133,720

자료: 日本 金融廳.

-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최저자본금규제 특례’, ‘중소기업 무담보융자촉진 제도’, ‘LLP 제도 설립’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함
  -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 실시’: 2003년 2월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 에 의해서 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로운 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됨(2006년 5월 회사법 실시로 인해 최저 자본금 규제가 완전 폐지)
  -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 제도’ 실시: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도 7월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 제도’ 를 실시한 결과, 3/4 분기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게 됨
  - LLP(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 설립: 2005년 8월 LLP 제도 설립 후 4개월 경과한 2005년 11월 말 시점에서 276건 증가되는 등 신규 회사 설립이 용이하게 됨
- 각종 규제 철폐: 기업 구조 조정 가속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
  - 기업 구조 조정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규제 철폐(1997년), 3각 합병 허용(2005년) 등 기업 규제를 개혁하고, 연결결산제도 도입(2003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함

- **공업등제한법(工業等制限法) 폐지:**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에 공장, 대학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 자체의 유효성이 상실, 2002년 7월에 폐지됨
- **공장재배치촉진법(工場再配置促進法) 폐지:** 최근 기업이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 시대로 변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정을 재배치하는 정책의 유효성이 감소, 2006년에 폐지됨

< 일본의 수도권 집중 규제 제도 철폐 사례 >

□ 工業等制限法 폐지(2002년 7월)

- 법 제정 배경

- 동법은 고도 성장기에 대도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의 과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집중을 규제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1949년에 제정된 규제임

- 동법 폐지 원인

-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정보화, 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해외로의 생산기능 이전 등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함
- **규제의 유효성과 합리성 상실:** 산업 및 인구 과도 집중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대학의 증설과 같은 경제 사회 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 자체의 유효성, 합리성의 상실로 동법은 43년 만인 2002년 7월에 폐지됨

□ 工場再配置促進法 폐지(2006년 4월)

- 법 제정 배경

- 동법은 정부가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이전촉진지역’(과도하게 공업이 집적된 지역)으로부터 ‘유도지역’(공업의 집적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공업 재배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으며, 대도시의 과밀한 공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환경을 보전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

- **동법의 성과:** 지금까지 ‘이전촉진지역’과 ‘유도지역’의 공업 출하액 비중이 역전되는 등 공업 재배치 정책은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음

- 동법 폐지 원인

- **정책 유효성 감소:** 최근 기업이 공장입지(해외 포함)를 선정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공장 재배치 정책의 유효성이 감소
-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공장 이전 계획 신청과 고정자산세 감면에 의한 교부세 조치의 실적은 최근에 없어지고 산업재배치보조금도 동법의 절정기인 1995년의 99억 엔에서 26억엔으로 1/4 가깝게 감소하여 2006년에 폐지됨

4. 시사점과 과제

- (일본 설비투자 회복의 교훈) 일본의 설비투자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등으로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 데에 있음
  - 제조업 투자 촉진책 강구: 특히 제조업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여전히 크고 제조업 투자 부진은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제조업 투자 촉진책을 강구해야 함
    - 세계 최고 경쟁력의 국내 제조업: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 국내 제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 부문임
    - 신성장동력 원천: 특히, 제조업은 IT, B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원천이므로 투자 증대 노력이 필요
    - 금융,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수요 창출: 또한 금융, 물류와 같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조업 발달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는 분야임
- (한국도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한국 또한 기업 투자 관련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LLP 등 신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대기업 투자 유도를 통한 시너지 유발: 일본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투자 회복과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과는 시차가 존재함으로 전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 설비투자의 파급 효과: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는 설비 생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설비투자 선순환 고리를 형성
    -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이와 관련된 규제들을 일본은 과감히 철폐하고 수도권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해외 기업 유치에 동시에 달성함
    - 공장입지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자연 분산 유도: 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대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공장입지 여건 개선을 통해 집중의 자연 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수도권의 첨단산업 기지화: 수도권을 경박단소형 첨단산업(바이오, 나노,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의 집적지화함으로써 수도권의 해외기업 유치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임
  - (創業 활성화 노력) LLP(유한책임사업조합) 등 기업 설립 촉진을 위한 新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석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하반기 이후 고용 시장 악화 예상

○ 8월 실업률은 실업자수가 7월에 비해 1만 6,000명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취업자수도 28만 3,000명 감소함에 따라 7월의 3.4%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저성장 지속에 따르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킴

- 15~29세 청년 실업자 수가 33.7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0.7만 명의 41.8%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0.6%p 하락한 7.4%를 기록함

- 또한 경기 부진에 따르는 구직 기회 감소로 비경제활동 인구인 구직단념자는 7월 수준인 12만 2,000명에 달함

- 한편 週당 근로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91만 2,000명으로 전월의 87만 7,000명보다 3만 5,000명이 증가함

하반기 경기 하강 가속화로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악화 예상

- 2/4분기 이후 외형상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하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실업률 상승이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5.6	-0.5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3.0	4.2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7.3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7.9	12.0	18.7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4.4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b>2,316</b>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b>3.4</b>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9	22.0	18.2	23.1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6	27	54	-11	7	9	-2	-	
	무역수지 (억\$)	294	232	60	49	61	17	51	20	6	6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2.9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3.8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 대폭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연준위 금리 동결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美년 8월 근원생산  
자물가지수의 예상  
외 하락 등으로 금  
리 하락
- 금리: 8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의 예상외 하락과 태국 쿠테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큰 폭 하락 (국채 10년물 : 4.79 → 4.64%)
  - 환율: 미 연준위의 금리 동결과 태국 쿠테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약화되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강보합시현 (\$/€ : 1.2666→1.2780, ¥/\$ : 117.55→116.38)

○ (국내 금융 시장)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대폭 하락

- 미 장기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고  
채 금리 하락
- 주가: 주 초반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 등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주 중반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의 순매도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1,361.1 → 1,352.3)
  - 금리: 미 장기 금리 하락과 내년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71→4.62%)
  - 환율: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전환 및 수출 네고 물량 출회에 가세하여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대폭 하락 (956.3→944.2)

○ (전망)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9.15.	9.22.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61.1	1,352.3
	국고채3년(%)	3.28	4.02	4.60	5.08	4.93	4.92	4.71	4.62
	원/달러	1,035.1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56.3	944.20
해외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561	11,533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5,867	15,834
	미국채10년(%)	4.22	3.91	4.32	4.39	4.85	5.14	4.79	4.64
	일국채10년(%)	1.44	1.17	1.48	1.48	1.78	1.93	1.67	1.70
	달러/유로	1.3556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66	1.2780
	엔/달러	102.56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7.55	116.38
	두바이(\$/바렐)	33.11	52.09	56.32	53.19	59.16	67.17	58.92	55.78

주 : 국내지표는 9월 22일 12:00 현재이고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